

인재양성 미래 전략 : 교회가 키워야 할 미래형 인재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새로남기독교학교 설립자, 이사장)

들어가는 말

우리 총회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총회교육진흥원’의 분투를 치하하며 격려한다. ‘총회교육진흥원’에서 산고 끝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과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 총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소망가운데 열어가기로 결단하였다. 이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가! 영국의 역사학자 E. H. Carr는 설파했다. “우리가 과거를 주의 깊게 돌아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미래를 지성적으로 내다볼 수 없다”(We cannot look forward to the future intelligently, unless we are prepared to look into the past attentively.) 특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이니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하나의 표지석이 되기를 소원해본다. 물론, 때 늦은 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깨닫고 준비하는 만큼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영적인 전열을 가다듬고, 대오를 정비하여 미래로 나아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결단이며 축복이라 확신한다.

교회 어른들의 예기치 않은 갈등과 상호비방으로 적전 분열 상태에 빠져있던 교회에 발제자가 부임한 이 후,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중 하나가 주일학교의 재건이었다. 그리고 떠나간 젊은이들에 대한 눈물의 기도였다. ‘주님!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떠나간 대학생과 청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교회로 돌아오도록 젊은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함과 주일학교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추어 영적 인프라를 제공한 결과,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부서에 남다른 회복과 발전을 허락하셨다. 발제자는 우리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당대에 든든히 서고, 다음 세대를 견인하는, 문자 그대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목회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마음을 담아,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하나의 통찰력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고명한 학자에게 발제를 맡기지 아니하고, 목회자인 발제자에게 이 일을 맡겼으리라 생각하며 목회 현장에 철저히 뿌리를 박고, 현장을 살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언약 복음 자유교회(Covenant Evangelical Free Church) 에서 오래도록 신실하게 목회했던 에드먼드 찬 (Edmund Chan) 목사가 발간한 저서 ‘의도적으로 제자훈련하는 교회’ (Intentional Disciple-Making Church) 는 교회내의 인재양성이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오늘날 교회의 필요는 ‘불의 능력자 엘리야’ 와 같은 슈퍼 스타만이 아니다. 단순하게 습관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수다한 예배 군중도 아니다. 에드먼드 찬은 오늘날 교회의 필요는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성실하게 후진을 양성하는 제자훈련 정신을 갖춘 목회자라 제시한다. 고기를 성도들의 입에 물려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낚시대를 들려주어 스스로 낚시하게 만들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게 하는 지도자의 통찰력이 필요하다. 선조들이 말한대로 ‘콩나물로 기를 것이냐, 콩나무를 기를 것이냐’ 는 어감이 비슷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콩나물은 길러먹어 없어져 버리지만, 콩나무는 또 다른 콩을 재생산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성경적 원리로 세워, 단절의 역사가 아니라 연속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붙잡길 소원한다. 우리의 은혜로우신 주님은 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출 3:15)

I. 무엇을 보았나? - 내용분석 및 해석

금번 총회교육진흥원에서의 조사는 1. 일반국민 인식조사, 2. 전국 주일학교 현황 조사, 3. 교역자 및 주일학교 학부모-학생 등 주일학교 관계자 인식조사, 4. 총신대 신학대학원생 인식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각적이며 종합적인 현황 및 실태, 인식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상호 분석하여 한국교회 및 총회의 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1. 조사 대상:

1. 교단 내 전국 2,000개 교회 (2016. 8~10월)
2. 주일학교 관계자 총 9,827명 설문조사(2017. 1월~ 2017. 2월)
 - 담임교역자 126명
 - 부교역자 582명
 - 주일학교 교사 1,842명
 - 주일학교 학부모 1,341명
 - 주일학교 미취학 아동 971명
 - 주일학교 유초등부 (초등학생) 1,472명
 -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 1,885명
 - 주일학교 청년-대학생 1,608명
3. 총신대 신학대학원생 974명 (2016. 5. 25~ 5. 26)
4. 일반 국민 1,000명(2016, 10, 31~ 11. 8)

표본으로 설정된 우리 교단 내 전국 2,000여 교회와 주일학교 관계자 설문조사, 총신 신대원 학생 대상 조사는 그 목적이 총회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이다. 향후 주일학교 운영 확대의 원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그 안에는 주일 학교 운영의 활성화 및 총회 교육 정책수립의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총신대 신대원생 대상의 설문조사는 향후 총회 교육 정책 및 주일학교 교과 과정 개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함이다. 이와 다르게 일반 국민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유는,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인식, 기독교에 대한 인식,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인식, 향후 기독교의 영향력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에 조사된 교회 각 관계자 의견과 비교 분석하여 향후 기독교 이미지 개선 전략 수립 및 총회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특이점은 주일학교 관계자 총 9,827명 중 담임교역자는 126명(1.3%) 이었다. 실제 한 지역 교회 목양의 최고 책임자이며, 주일학교 교육현장의 최고 후원자인 담임교역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다. 담임목사의 의식과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그가 목회하는 지역교회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 “목회현장은 담임목사의 얼굴이다” “물이 수면을 넘을 수 없다.”

발제자는 우리 총회의 미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렇듯 광범위한 설문조사 사례를 접해 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금 번의 '총회교육진흥원'의 시도는 매우 도전적이며 절박함이 배어 있는 사례로 생각된다. 각 조사대상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몇 가지 설문을 뽑아내어 살펴본

다. (전체를 다루기에는 그 내용이 방대함)

2. 신앙생활 시작 시기

신앙생활 시작 시기를 볼 때, **담임교역자**(126명)는 모태신앙이 43.7%로 가장 많았고, 10대(22.2%), 1~9세(19.3%), 그리고 20대(13.5%)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주도층 교회(Opinion Leader 교회: 일반 교회와의 인식비교를 위해 교단 내 교회 규모가 큰 교회 위주로 별도로 표본 추출됨)의 담임교역자는 30대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일반 교회 역시도 희소(1.5%)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 교단 목회자들 대부분이 모태신앙에서 20대까지 걸쳐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주도층 교회 담임교역자의 50.8%가 모태신앙 출신이었고 9살까지 범위를 확대할 때 68.8%였다.

부교역자(582명)의 신앙생활 시작 시기 역시 모태신앙이 56.0%로 가장 많았고, 10대(17.9%), 1~9세(14.3%), 그리고 20대(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일학교 교사(1,842명)의 신앙생활 시기는 모태신앙이 39.3%로 가장 많았고, 10대(18.6%), 1~9세(14.7%), 그리고 20대(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일학교 학부모(1,341명)의 신앙생활 시기는 모태신앙이 33.3%로 가장 많았고, 10대(21.1%), 1~9세(15.7%), 그리고 20대(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971명) 10명중 8명 정도(78.5%)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시기가 모태신앙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4~5세(7.3%), 1~3세(6.5%), 6~7세(4.2%) 순이었다.

유초등부 학생(1,472명)의 신앙생활 시작 시기는 모태신앙이 6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치원 이전(21.4%), 초등학교(15.2%) 순이었다.

중고등부 학생(1,885명)의 신앙생활 시작 시기는 모태신앙이 70.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치원 이전(12.3%), 초등학교 때(12.3%)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대학생(1,608명)의 신앙생활 시기는 모태신앙이 6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치원 이전(10.1%), 초등학교(9.4%) 순이었다.

모태신앙은 **주일학교 교사(39.3%), 주일학교 학부모(33.3%), 미취학 아동(78.5%), 유초등부 학생(62.4%), 중고등부 학생(70.1%),** 그리고 **청년-대학생(66.5%)**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중심을 이룬 그룹이 신앙의 세대 계승을 통한 모태신앙 성도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며, 동시에 복음 전도가 급선무임을 깨우쳐준다.

담임 교역자의 절대다수, 압도적인 부분이 10대까지 결정된다. 주일학교 교육에 힘써야 할 이유가 수다하지만 우리 총회 산하의 양질의 교역자를 배출하는 관문과 현장으로서 주일학교 교육과 가정교육은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부교역자와 주일학교 교사의 사례도 모태신앙과 주일학교 때가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주일학교는 전체 교회의 모판이며 미래이다. 주일학교를 잃어버리면 한국교회는 미래를 상실하는 것이다.

3. 영접 시기

모태신앙 중심의 성도, 교역자 구성과 더불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시기에 대한 설문에는, 담임교역자(126명)를 대상으로 10대가 48.4%로 가장 많았으며, 20대(27.0%), 모태신앙~9세(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교역자 (582명)을 대상으로는 10대(50.9%), 20대(24.6%), 모태신앙~9세(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교역자 10명중 대략 7명 정도가 19세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일학교 교사(1,842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시기는 10대가 35.0%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26.6%), 모태신앙~9세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일학교 학부모(1,341명)의 경우 10대(34.0%), 20대(24.0%), 30대(17.8%), 모태신앙~9세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초등부 학생(1,472명) 대부분(92.7%)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며, 영접한 시기는 모태신앙이 4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28.0%), 유치원 이전(24.1%)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부 학생(1,885명) 대부분인 10명 중 9명 정도(86.9%)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며, 그 시기는 모태신앙(42.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25.1%), 초등학교(17.8%) 등의 순이었다.

청년·대학생(1,608명) 대부분(94.2%)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그 시기는 고등학교 때(23.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모태신앙(22.1%), 중학교(18.8%), 대학교(16.0%) 순이었다.

가정에서와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중심한 회심교육이 힘 있게 일어나야 건강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다. 주일학교 시절의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한다. 주일학교가 사라지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는다. 안타까운 사실은 주일학교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았는데도 총회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약하다는 사실이다. 발제자만의 느낌이기를 바란다. '총회교육진흥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이 요청된다. 재정적, 인력 후원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 연구 활동과 저술 활동과 세미나와 강연을 통한 저변 확대가 일어나야 한다.

4. QT 여부

담임교역자(126명) 6명 중 5명 정도(85.7%)가 현재 QT를 하고 있었다.

부교역자(582명) 10명 중 8명 정도(80.6%)가 현재 QT를 하고 있었다.

주일학교 교사(1,842명) 2명 중 1명 정도(47.3%)가 현재 QT를 하고 있었다.

주일학교 학부모(1,341명) 9명 중 4명 정도(45.3%)가 현재 QT를 하고 있었다.

미취학 아동(971명) 4명 중 1명 정도(23.8%)가 현재 QT를 하고 있는 반면, QT를 하지 않는 비율은 53.1%로 나타났다. 한편, QT를 잘 모른다는 비율은 20.1% 였다.

유초등부 학생(1,472명) 9명 중 4명(44.4%)이 현재 QT를 하고 있었으며, QT를 하지 않는 비율은 49.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중고등부 학생(1,885명) 3명 중 1명 정도(34.2%)가 현재 QT를 하고 있었으며, 하지 않는 비율이 63.0%로 더 많았다.

청년-대학생(1,608명) 9명 중 4명 정도(43.5%)가 현재 QT를 하고 있었으며, QT를 하지 못하는 비율이 55.3%로 더 많았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생(974명) 2명 중 1명 정도(47.5%)가 QT를 하고 있었다.

교회교육은 그 기본요소가 교사, 학생, 교재, 교육환경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육자와 피교육자에게 공히 역사하실 때 교육현장은 놀라운 가치의 변화와 인격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 주일학교 교사의 QT는 배우는 학생들에게 직결된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주일학교 교사만이 학생들의 영혼을 힘 있게 세울 수 있다. 이런 맥

락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돕고 세우는 도구가 필요하다. 1962년 전국주일학교연합회 기관지 '주일학교 교지'로 창간되어 1964년 '주일학교 교사의 벗'으로 등록하고 정식 발행한 이후 줄곧 우리 총회의 교사들을 돕고 있는 '월간 교사의 벗'이라는 잡지가 있다. 총신 출신의 강정훈 목사(1985년부터 경영)가 고인이 되신 우리 총회의 계단공과의 산파역으로 힘쓰신 임승원 목사의 뒤를 이어 수십년째 분투하고 있다. 우리 총회에서 직접 운영하지 못하면 아웃 소싱이라도 하여 총회내 교사들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행자로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총회 위상에 걸맞는 교사를 위한 정기적인 전문잡지는 언제 가능할 것인가?

5. 1일 평균 기도시간

담임교역자(126명)의 하루 평균 기도시간은 구간별로는 1시간~3시간 미만이 6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분~1시간 (23.0%), 3시간 이상(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교역자(582명)의 하루 평균 기도시간은 구간별로 30분~1시간 미만이 5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시간~3시간(30.9%), 30분 이하(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교역자 10명 중 7명 정도(66.7%)가 하루 평균 1시간 미만 기도하는 반면, 10명 중 3명 정도 (31.9%)가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일학교 교사(1,842명)의 하루 평균 기도시간은 구간별로 5분~10분 미만이 3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분~20분 미만(29.6%), 20분~30분 미만(15.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일학교 학부모(1,341명)의 하루 평균 기도시간은 구간별로 5분~10분 미만이 3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분~20분 미만(28.2%), 20분~30분 미만(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일학교 학부모 10명 중 8명 정도(79.8%)가 하루 평균 30분 미만 기도하는 반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비율은 5.5% 였다.

미취학 아동(971명) 10명 중 9명 정도(87.6%)가 평소 기도를 하고 있었으며, 기도를 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851명) 10명 중 8명 정도(77.9%)가 하루 평균 기도시간이 5분~10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10~20분(15.2%), 20~30분(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초등부 학생(1,742명) 10명 중 8명 정도(83.4%)가 평소 기도를 하고 있었으며,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 유초등부 학생(1,228명) 4명 중 3명 정도 (75.7%)가 하루 평균 기도시간이 5~10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10~20분(15.9%), 20~30분(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부 학생(1,885명) 10명 중 9명 정도(87.0%)가 평소 기도를 하고 있었으며, 기도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1,641명)의 하루 평균 기도시간은 구간별로 5~10분이 72.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20분 (18.3%), 20~30분 (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대학생(1,608명) 대부분 (93.1%)이 평소 기도를 하고 있었으며, 기도를 하는 청년-대학생(1,497명)의 하루 평균 기도시간은 구간별 5분~10분이 5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분~20분(27.0%), 20~30분(11.0%), 30분 이상(5.8%) 등으로 나타났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생(974명) 대부분(84.1%)이 매일 기도 혹은 기도회만 참석하여 기도 하고 있었으며, 특히 신대원생 4명 중 3명 정도(75.1%)가 매일 기도(30분 미만 33.1% + 30분 이상 42.0%) 하고 있었다.

기도생활의 깊이는 신앙생활의 질을 결정한다. 휴대전화와 SNS 사용여부와 비교하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자녀들이 얼마나 험난한데 노출되어 있는가를 뼈아프게 알 수 있다. 유초등부 학생의 일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1시간-3시간 (59.8%) 3시간-5시간(11.6%), 5시간

이상(4.0%) 하루종일(2.8%) 유초등부학생 1,472명, 사용안함(21.2%) 중고등부학생(1,885명) 일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1시간-3시간(40.1%) 3시간-5시간(33.8%), 5시간 이상(14.3%) 하루종일(5.8%) 사용안함(5.8%) 청년대학생 (1,608명) 일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1시간-3시간(43.2%) 3시간-5시간(32.5%), 5시간 이상(14.5%) 하루종일(8.1%) 사용안함(1.1%)

스마트폰 대세인 시대에 어떻게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교육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무릎의 교육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무릎을 꿇으므로 가능하다. 총회적으로 기도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6. 1일 평균 성경 독서시간

담임교역자(126명)의 하루 평균 성경 독서시간은 구간별 30분~1시간이 4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3시간(41.3%), 3시간 이상(3.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교역자(582명)의 하루 평균 성경 독서시간은 구간별로 30분~1시간 미만이 4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분 미만(29.4%), 1~3시간 미만(1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교역자 10명 중 8명 정도(79.0%)가 하루 평균 1시간 미만 성경을 읽는 반면, 10명 중 2명 정도(20.1%)가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있었다.

주일학교 교사(1,842명)들의 하루 평균 성경 독서시간은 구간별로 5~10분 미만이 3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20분 미만(26.0%), 20~30분 미만(17.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일학교 학부모(1,341명)의 하루 평균 성경 독서시간은 구간별로 5분~10분 미만이 3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20분 미만(26.6%), 20~30분 미만(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971명) 10명 중 7명 정도(69.2%)가 평소 성경을 읽고 있었으며, 성경을 읽는 미취학 아동(672명)의 하루 평균 성경을 읽는 시간은 5~10분(70.2%) 구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20분(20.4%), 20~30분(7.4%) 등의 순이었다.

유초등부 학생(1,472명) 10명 중 7명 정도(69.2%)가 성경을 읽고 있었으며, 성경을 읽고 있는 유초등부 학생(1,019명)의 하루 평균 성경 독서시간은 5~10분이 59.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20분(23.8%), 20~30분(11.0%) 등의 순이었다.

중고등부 학생(1,885명) 10명 중 6명 정도(63.4%)가 성경을 읽고 있었으며, 성경을 읽는 중고등부 학생(1,196명)의 하루 평균 성경 독서시간은 구간별로 5~10분이 7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20분(18.0%), 20~30분(8.2%) 등 순이었다.

청년-대학생(1,608명) 10명 중 8명 정도(79.2%)가 성경을 읽고 있었으며, 성경을 읽는 청년-대학생(1,274명)의 하루 평균 성경 독서시간은 구간별로 5~10분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20분(27.0%), 20~30분(11.9%), 30이상 등으로 나타났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생(974명) 대부분(83.6%)이 매일 혹은 가끔 성경을 읽고 있었으며, 특히 신대원생 2명 중 1명 정도(49.0%)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었다.

특이점은 부교역자의 성경 읽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통계이다. 사역에 쫓기느라 시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부교역자들이 나중에 담임목사로서 사역할 때 부교역자 시절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평생 축복된 습관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신대원생들의 커리큘럼을 성경 자체를 읽는 일에 집중하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훈련은 평생 축복된 경건의 습관의 출발점이 된다.

7. 1주일 동안 가정예배 여부 및 횟수

담임교역자(126명) 10명 중 6명 정도 (57.1%)가 1주일 1회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담임교역자(72명)의 1주일 가정 예배 횟수는 1~2회(63.9%), 3~4회(20.8%), 5회 이상(15.3%) 순으로 나타났다.

부교역자(582명) 9명 중 4명 정도(44.2%)가 1주일 1회 이상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예배를 드리는 부교역자(257명)의 1주일 가정예배 횟수는 1~2회(70.8%), 3~4회(19.5%), 5회 이상(9.7%) 순으로 나타났다.

주일학교 교사(1,842명) 4명 중 1명 정도(23.5%)가 1주일 1회 이상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교사(433명)의 1주일 가정예배 횟수는 1~2회(73.6%), 3~4회(15.7%), 5회 이상(10.2%) 순으로 나타났다.

주일학교 학부모(1,341명) 10명 중 3명 정도(30.4%)가 1주일 1회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학부모(408명)의 1주일 가정예배 횟수는 1~2회(71.7%), 3~4회(16.8%), 5회 이상(11.5%)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971명) 10명 중 3명 정도(31.0%)가 1주일에 1회 이상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예배를 드리는 미취학 아동(301명)의 1주간 가정예배 횟수는 1~2회(71.3%), 3~4회(17.4%), 5회 이상(11.3%) 순으로 나타났다.

유초등부 학생(1,472명) 9명 중 4명 정도(45.3%)가 1주일에 1회 이상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예배를 드리는 유초등부 학생(667명)의 1주간 가정예배 횟수는 1~2회(72.4%), 5회 이상(14.3%), 3~4회(13.2%)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부 학생(1,885명) 4명 중 1명 정도(25.4%)가 1주일에 1회 이상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학생(478명)의 1주간 가정예배 횟수는 구간별로 1~2회(79.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4회(10.6%), 5회 이상(9.9%) 순이었다.

청년-대학생(1,608명) 7명 중 1명 정도(14.9%)가 1주일에 1회 이상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예배를 드리는 청년-대학생(240명)의 1주간 가정예배 횟수는 구간별로 1~2회(81.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4회(10.1%), 5회 이상(8.7%)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로 올라 갈수록 가정예배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전 세대 한국교회를 지탱해온 가정예배의 전통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어떠한 교육도 가정교육을 대신하지 못하며, 어떠한 가정교육도 가정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 가정예배 회복이 우리 시대 모든 가정의 급선무이다.

8. 주일학교 성장의 주된 방해요소

담임교역자(126명)이 생각하는 주일학교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복수 응답)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부족(63.5%)과 교역자의 전문성 부족(39.7%)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의식 부족(34.9%)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의식 부족(34.9%), 교사의 헌신 부족(32.5%),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30.2%) 등의 순이었다.

부교역자(582명)이 생각하는 주일학교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복수 응답)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부족(51.2%)과 부모의 의식부족(40.0%)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역자 전문성 부족(32.6%), 교사의 헌신 부족(32.0%) 등의 순이었다.

주일학교 교사(1,765명)이 생각하는 주일학교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복수 응답)는 기독교에 대

한 부정적 인식(40.8%)과 출산을 저하에 따른 학생 부족(40.6%)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의식 부족(38.2%),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35.7%), 학원 등 학생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35.7%) 등의 순이었다.

주일학교 학부모(1,301명)이 생각하는 주일학교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복수 응답)는 출산을 저하에 따른 학생 부족(52.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 의식 부족(37.9%),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37.1%), 전도 부족(31.1%) 등의 순이었다.

모두가 대동소이하게 출산을 저하에 따른 학생 부족을 주일학교 성장에 주된 방해 요소로 꼽았다. 그러나 이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담대하게 부모의 의식을 일신하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며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여 방해요소를 딛고 일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담임교역자 인식과 부교역자의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복음전도는 수세적 자세에서 공세적 전략으로의 조정이 승리의 단초가 된다.

9. 식사 기도여부

청년·대학생(1,608명)이 캠퍼스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10명 중 9명 정도(86.3%)가 식사 기도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대학생(1,388명)의 식사기도 방식은 눈을 뜨고 속으로 한다(76.4%), 눈을 감고 기도한다(23.6%)로 나타났다.

식사기도 한다(86.3%) 식사기도 거의 하지 않는다(13.4%) 눈을 감고 기도한다(20.4%)

눈을 뜨고 속으로 한다(65.9%) 식사기도 거의 하지 않는다(13.4%) 무응답(0.3%)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결과이다. 식사기도하지 않는 청년, 대학생들이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식사기도 형식 또한 놀라게 다가온다. 현장성이 결여된 신앙훈련은 능력부재와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감을 세우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청년들의 의식과 태도가 캠퍼스 복음화를 확실하게 열어갈 것인가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담임교역자와 청년대학부 지도자들이 대오 각성을 촉구해야 할 부분이다. 무니만의 그리스도인을 양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당당한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세워야 한다. 구름에 뜬 대학 청년부 활동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전환되도록 실사구시의 대학청년부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발제자도 이러한 대학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를 위한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되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젊은이를 교훈하지 말고, 생활 밀착형으로 삶의 무게 중심이 성경의 원리에 의하여 세워지도록 대학청년들이 처한 사회, 문화적 형편을 이해해야 한다.

10. 현재 교회의 당면과제

담임교역자(126명)은 현재 교회가 당면한 과제(복수 응답)로 주일학교 등 다음 세대 교육 확대(52.4%), 교인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39.7%), 목회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36.5%)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부교역자(582명)은 현재 교회가 당면한 과제(복수 응답)로 주일학교 등 다음 세대 교육확대(54.8%), 교인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43.9%), 목회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37.1%)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일학교 교사(1,738명)은 현재 교회가 당면한 과제(복수 응답)로 교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50.1%) 및 주일학교 등 다음 세대 교육(44.2%)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목회자에 대한 부

정적 인식 개선(26.1%), 신도들의 신앙심 확대(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일학교 학부모(1,298명)은 현재 교회가 당면한 과제(복수 응답)로 교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55.7%) 및 주일학교 등 다음 세대 교육(38.5%)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30.0%), 투명한 헌금 사용(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임교역자와 부교역자는 다음 세대 교육 확대를 제 일 순위로 꼽았고 주일학교 교사와 학부모는 교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일 순위로 꼽았다. 이러한 사실에서 교회의 당면 과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사실 교회 당면과제는 목회자이든, 교인이든 그 뿌리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자기 정체감과 연결되어 있다. 주일학교 학부모들은 투명한 헌금 사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재정사용에 기대가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

11.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중점과제

담임교역자(126명)은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복수 응답)로 사역자 전문성 증대(46.0%), 교사 교육 강화(39.7%), 가정 연계 교육 강화(38.9%), 교육 콘텐츠 개발(29.4%)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부교역자(582명)은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복수 응답)로 가정 연계 교육 강화(52.7%), 교사 교육 강화(32.6%), 예배 강화(28.0%), 전문적인 사역자 확충(27.3%)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일학교 교사(1,763명)은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복수 응답)로 가정 연계 교육 강화(40.2%), 교육 콘텐츠 개발(37.8%), 교사 교육 강화(32.6%), 전문적인 사역자 확충(27.3%)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일학교 학부모(1,303명)은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복수 응답)로 가정 연계 교육 강화(45.0%), 교육 콘텐츠 개발(38.7%), 전문적인 사역자 확충(28.3%), 교사 교육 강화(32.6%)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담임교역자는 사역자의 전문성 증대를 일순위로 두었고, 부교역자와 주일학교 교사 및 학부모는 가정 연계 교육 강화를 일순위로 두었다. 교회현장을 바라보는 담임교역자의 안목과 부교역자의 안목이 엇박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상호 기대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총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중점 과제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대안을 세우고 일선 목회자들에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중점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우며 통찰력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한 대목이다. 사역자의 전문성 증대는 이론으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선택과 집중은 목회현장에서도 매우 유용한 원리이다. 주님께서는 고강도의 제자훈련에 우선 순위를 두시고, 집중하셨다.

12. 긍정적 기독교 이미지 형성의 영향요인

일반국민(1,000명)은 향후 긍정적 기독교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목회자의 생활태도(38.2%)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독교인의 생활태도(27.4%), 교회 봉사활동(11.3%), 교회 전도방식(8.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독교신도(252명)은 향후 긍정적 기독교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목회자의 생활태도(33.7%) 및 기독교인의 생활태도(32.5%), 다음세대 교육(17.9%) 등을 응답하였다.

담임교역자(126명)은 일반 국민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복수 응답)으로 기독교인들의 생활태도나 방식(74.6%)을 꼽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목회자의 신뢰도(38.1%)를 응답하였다.

부교역자(582명)은 일반 국민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복수 응답)으로 기독교인들의 생활태도나 방식(72.7%)을 꼽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목회자의 신뢰도(39.3%)를 응답하였다.

주일학교 교사(1,778명)은 일반 국민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복수 응답)으로 기독교인들의 생활태도나 방식(73.7%)을 꼽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목회자의 신뢰도(27.2%), 교회의 전도방식(7.1%) 등을 응답하였다.

주일학교 학부모(1,292명)은 일반 국민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복수 응답)으로 기독교인들의 생활태도나 방식(74.7%)을 꼽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목회자의 신뢰도(27.8%), 교회의 봉사활동(7.1%) 등을 응답하였다.

영적지도자인 목회자의 생활태도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목회자의 삶의 모습은 교우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교회이미지 형성으로 되 돌아온다. 신행일치, 언행일치의 모습을 일반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답게 마치 산위에 있는 동네처럼 드러나는 때에 가치 훈련과 생활 훈련은 교회의 이미지 형성에 근간을 이룬다. 아래에 제시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교회의 이미지 형성은 함께 간다. 우리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특정한 프레임에 갇히면 매사에 부정적인 안목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비평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13.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준

담임교역자(126명)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준(복수 응답)으로 기독교인의 생활태도(44.4%)를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했고, 그 다음으로 예배생활(31.7%), 성품(29.4%), 기도생활(11.9%)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부교역자(582명)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준(복수 응답)으로 기독교인의 생활태도(43.4%)를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했고, 그 다음으로 성품(38.7%), 예배생활(35.4%), 기도생활(14.0%)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주일학교 교사(1,771명)이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준(복수 응답)으로 기독교인의 예배생활(42.1%)를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인의 생활태도(43.4%), 기도생활(29.9%), 성품(2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일학교 학부모(1,308명)이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준(복수 응답)으로 예배생활(43.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도생활(31.3%), 기독교인의 생활태도(31.3%), 성품(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부 학생(1,843명)이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준(복수 응답)으로는 기도생활(25.9%)과 예배생활(22.6%)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생활태도(19.3%), 교회 충성도(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대학생(1,588명)이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준(복수 응답)으로는 예배생활(32.7%)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했고, 그 다음으로 생활 태도(31.0%), 기도 생활(28.2%), 성품(21.8%)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담임교역자와 부교역자는 기독교인의 생활태도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학부모, 청년 대학생은 예배생활에서, 청소년들은 기도생활과 예배생활을 기준삼아, 성숙함이라 간주했다. 생활태도와 예배생활과 성품 그리고 기도생활은 따로 독립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격에 녹아 들어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 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기준은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성품을 얼마나 체화, 인격화 시켰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 마치 한 성령님의 열매가 9가지의 다양함으로 나타난 것처럼 성숙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를 닮음” 곧 성품의 변화에 기인한다.

14. 향후 한국사회의 이슈

담임교역자(126명)이 생각하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복수 응답)로는 통일문제(54.0%), 인구 감소(47.6%), 고용 불안(27.0%) 등으로 나타났다.

부교역자(582명)이 생각하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복수 응답)로는 인구 감소(35.8%), 통일문제(28.3%), 고용 불안(28.3%), 1인 가구(21.0%) 등으로 나타났다.

주일학교 교사(1,768명)이 생각하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복수 응답)로는 고용불안(37.7%), 인구 감소(34.6%), 통일문제(31.9%), 인터넷 중독(27.3%), 1인 가구(17.0%)등으로 나타났다.

주일학교 학부모(1,288명)이 생각하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복수 응답)로는 고용불안(40.7%), 인구 감소(32.1%), 통일문제(31.3%), 인터넷 중독(26.1%), 1인 가구(16.5%) 등으로 나타났다.

중고등부 학생(1,820명)이 생각하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복수 응답)로는 통일 문제(39.5%)와 국제 관계(30.3%)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용 불안(23.4%), 인터넷 중독(20.8%), 인구 감소(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대학생(1,575명)이 생각하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복수 응답)로는 고용 불안(37.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구 감소(24.9%)와 국제 관계(24.8%), 통일문제(24.1%)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국제 정치, 경제 대통령 문제(9명), 줄어드는 성도 문제(2명)등의 응답이 있었다.

담임교역자는 통일문제로, 부교역자는 인구감소로 주일학교 교사는 고용불안으로 청년, 대학생들 역시 고용불안으로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개인적인 경험을 한국사회의 이슈로 제시했다. 이 역시 담임교역자와 다른 이들과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청년 대학생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희미해져 가는 현실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담대함의 영성을 회복함이 중요하다. 어려울 때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면, 현실에 매몰되어 끝없이 표류하게 된다. 교역자와 기성세대가 용기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해해 주고, 기다려 주고, 어깨를 감싸줘야 한다.

15. 향후 한국 교회의 이슈

담임교역자(126명)이 생각하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할 주된 이슈(복수 응답)는 주일학교의 위기(62.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교 다원주의(28.6%), 전도(27.8%), 이슬람의 도전(23.8%) 등으로 나타났다.

부교역자(582명)이 생각하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할 주된 이슈(복수 응답)는 주일학교의 위기(58.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교 다원주의(28.9%), 이슬람의 도전(26.1%), 새로운 유형의 교회(17.0%) 등으로 나타났다.

주일학교 교사(1,764명)이 생각하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할 주된 이슈(복수 응답)는 주일학교의 위기(43.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단·사이비(32.4%), 전도(30.2%), 종교 다원주의(23.0%), 이슬람의 도전(22.7%) 등으로 나타났다.

주일학교 학부모(1,297명)이 생각하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할 주된 이슈(복수 응답)는 주일학교의 위기(44.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단·사이비(28.7%), 전도(26.9%), 선교(24.1%), 종교 다원주의(23.0%) 등으로 나타났다.

중고등부 학생(1,804명)이 생각하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할 주된 이슈(복수 응답)는 전도(46.1%)와 이단 및 사이비(42.7%)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교(33.9%), 주일학교의 위기(19.8%), 인공지능과 스마트 시대(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동성애(5명), 교회 개혁(3명) 등의 의견이 있었다.

청년·대학생(1,582명)이 생각하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할 주된 이슈(복수 응답)는 이단 및 사이비 문제(41.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일학교의 위기(32.9%), 전도(30.7%), 선교(24.6%), 종교 다원주의(19.1%), 이슬람의 도전(15.5%)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 응답으로는 경건, 신앙 회복(8명), 동성애(5명), 제자 양성(2명) 등의 응답이 있었다.

담임교역자와 부교역자, 교사와 학부모는 주일학교 위기를 최대의 이슈로 생각한 반면, 청년 대학생들은 이단 및 사이비 문제를 캠퍼스와 직장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기에 이슈안에 포함 시켰다. 종교다원주의와 이단·사이비 문제 등 성경적 원리에 대한 교육과, 선교의 뿌리 찾기를 통하여 이러한 이슈들이 긍정적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한국교회에서 간헐적으로 교육한 교리 문제와 심도 깊은 성경강해 사역이 모두에게 제공 되는 구조로 목회가 개편되어야 한다. 종교다원주의와 이슬람의 도전 그리고 동성애 문제는 예방이 최선이다. 우리 총회가 앞장서서 이단·사이비를 막는 일과 동성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참고하도록 이단·사이비와 이슬람, 종교다원주의를 총망라한 간편한 소책자를 보급하여 교회의 예방 사역을 강화해야 한다. 한 교회의 목회적 이슈나 한국교회의 목회적 이슈는 크게 다르지 않다.

II. 교회에서 키워널 미래형 인재

성도를 성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남다른 열정과 은사 그리고 현장성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교훈과 권면 그리고 경고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서 키워널 미래형 인재를 제시해 본다.

사도 바울의 유연적 메시지는 사역자인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메시지이다.

전제 : 시대 정신 분별자로 서라. 예나 지금이나 복음과 성도는 세상의 가치와 엇박자이다. 성도가 세상과 박자를 맞추려고 안간힘을 쓸 때 그 결과는 교회의 세속화로 귀결된다.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 말세는 성도가 고통 하는 때이다. 그 중심에는 사람들의 자기 사랑, 돈 사랑이 자리 잡고 있으며 대인관계가 깨어지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극대화 되어 나타나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이다. 인간관계의 신의가 깨어지며, 성령 안에서의 희락보다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위주의 사회가 우리 당대와 우리의 자녀세대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할 현상이

다.(딤후 3:1-5)

한마디로 진리를 대적하는 시대이다.(딤후 3:8) 말세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시대이다. 또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맹종하는 시대이기도 하다.(4:3-4) 이러한 때에 세속의 가치를 역류하며, 진리의 가치를 높이 들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진리가 매몰되고 혼란한 시대에서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신다. 진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요 4:23)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신다고 굳게 약속해 주셨다.(대하 7:14)

유다왕 아사시대, 온 백성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개혁을 선포하였다.(15:12-15)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대하 15:12-15)

온 유다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셨다고 기록되었다. 올해 종교개혁(교회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종교개혁, 다시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모이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운동이 일어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상상을 뛰어 넘는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키워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1. 신앙의 세대계승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의 세대계승을 감사하며 기뻐하였다. 그 이유는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대 뿐 아니라 어머니와 외조모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시대의 급선무는 신앙의 세대계승자이다. 신앙의 세대계승자의 특징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이다.(Sola Scriptura) 영적인 바턴 터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뿌리 깊은 신앙의 열매이다. 앞에서 본대로 담임목회자와 부교역자,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믿는 가정 출신이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신앙의 세대계승으로 이루어졌다. 주일학교 교육이 무엇에 타겟을 두어야 할지 자명하다. 그것은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전 세대의 신앙을 계승함이다. 신앙의 세대계승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예배를 통한 성경의 조기 교육이 시급하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5-17)

앞에서도 보았듯이 직분자 및 교우들의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우리 총회와 '총회교육진흥원'은 가정예배 회복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 교단지인 기독교신문을 통하여 매일 가정예배 자료를 제공하든지, 교단 QT집 발간을 통하여 우리 총회 산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를 튼실하게 세우도록 모든 영적 자료를 공급해야 할 것이다. 총회는 정책 총회로 힘써 나아가 성도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실사구시의 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이다.

신앙의 세대계승자는 자기정체감이 펄펄 살아 끓어오르는 사람이다. 지난 7월 4일 국회의사당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장관 후보자는 “진화론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는 질문을 받았다. 후보자가 답변을 유보하는 태도를 취하자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 수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 자리에서 후보자는 “창조과학은 비(非)과학 반(反)과학”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 후보자는 평소에 창조론자로 알려진 인사였다. 신앙의 세대계승자가 되려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정체감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신앙의 세대계승자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그리고 신앙고백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한다.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1-2)

2. 복음의 정예군사

복음의 정예군사는 곧 진리의 전사이며 십자가 증인이다. 복음의 정예군사는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을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는 일부 성도들의 신앙 양태가 인본주의적이라는 데 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성공과 행복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순수한 신앙적 자세보다는, 개인이 잘되고, 가정이 풍요로워지며,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 것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주종 관계가 바뀐 채,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과 이익 추구를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과 결탁하여 한국 교회의 복음적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기복주의 신앙은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 ‘자기부인,’ ‘영적 도덕적 순결’ 등의 중요한 개념들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오히려 ‘성공,’ ‘축복,’ ‘범사 잘됨’ 등이 메시지의 주된 내용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자체를 왜곡함에 다름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종종 고난의 길이며 좁은 길이며, 눈물의 골자기와 같은 길이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먼저 우리의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다.”(요 15:18-25) (정성욱 교수/개혁 & 개혁/부흥과개혁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자고 권면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사람이다.(엡 6장) 인본주의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복음과 교회로 인한 박해를 피해 숨는다. 그러나 복음의 정예군사는 박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나아가 박해를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 믿는다. 은혜는 고난까지 포함한다(빌 1:29)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딤후 3:12)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5)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삶으로 복음의 전사임을 제시하였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딤후 2:9)

우리는 종교개혁 즉 교회개혁의 열매는 누리지만, 개혁자들이 당한 고난은 거부한다.

고난당하지 않았던 루터와 칼빈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복음의 정예 군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과정을 교육패러다임에서, 훈련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논산에 위치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정병 배출의 요람이 ‘육군 교육소’가 아니라 ‘육군훈련소’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교양인을 배출하는 현장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모든 주일학교는 신앙인 곧 복음의 정예 군사를 배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담임목회자의 의식의 환골탈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3. 소명 받은 사역자

소명 받은 사역자만이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소명이 희미하면 사역도 희미하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만인 제사장의 원리(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에 기초한다. 종교개혁 당시 그 부패함은 성직 제도의 변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제들에 의하여 억눌리고 유린된 교회안의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시 하였다. 잘못된 성경해석으로 인한 폐해였다. 사제들이 신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 막고 사람들을 흑세무민하였다.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제들의 영적 농간에 의하여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게 이르렀다. 이때에 개혁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교황 제도와 사제 제도가 교회와 성도를 변질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반 성경적인 교황과 사제 제도에 억압당하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바벨론 포로(Babylonian Captivity)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였다. 드디어 만인제사장의 원리를 되찾은 것이다.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벧전 2:5)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가 소명 받은 사역자이지만, 사역의 어려움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 희미해진 것을 다시 불일 듯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딤후 1:6)

우리 총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소명 받은 사역자로서의 당당하고 고상한 사역을 힘 있게 펼쳐가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과 신학대학원의 신학교육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대대적인 담임목회자 재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는 강력한 재교육의 구조가 요청된다. 지금도 총회목회대학원이 운영 되고 있지만 강점은 계속 살리되 정치색을 탈피하여 목회의 열정을 회복하는 위상이 새로워진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4. 교회 세움이

개혁자 칼빈이 제네바 시의회로부터 두 번째 담임목회자로 초청 받았을 때 그는 개혁자로서의 기대와 걱정을 문서로 표현하였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들의 목사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의 무질서를 고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저를 망명생활에서 다시 부르신 것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범죄와 방탕함을 제거하십시오.
제 생각에 복음의 제일 큰 적은 로마의 교황이나 이단이나,
미혹케 하는 자들이나 독재자가 아니고 나쁜 기독교인들입니다.
선행을 겸비하지 않은 죽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악한 생활이 진리를 가장하고 행동이 말을 부끄럽게 한다면
진리 자체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저로 하여금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고장을 버리고 떠나 새로운 망명지에서
제 고통의 쓰라림을 삭히게 하시든가 교회 안에 법이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해 주십시오.
순수한 훈련(discipline)이 재건되게 해 주십시오.(김병환/사회복지사업에서 본 칼빈연구/목양)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제네바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학교(the perfect school of Christ)로 높이 평가하였다.

요즘 한국 교회 내에서 유행병처럼 번지는 것은 명색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미명을 대며 교회에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군에게 총질을 해대는 형국이다.(Friendly fire/Team kill) 어떤 이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위해 몸과 재정으로 봉사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입술봉사(Lip Service)에만 매진한다.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평생 잊지 못할 복음사역의 지원자와 후원자 그리고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함으로 드러나 있다. 여러 사람이 복음을 등지고 교회를 해하려 했지만, 그와 반대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역자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존재하였다.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의 패악이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 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도 바울도 버림을 당한 쓰디 쓴 기억이 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딤후 1:15)

동시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만나게 하신 사람을 통한 눈물의 격려를 받은 일도 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딤후 1:16-18)

사도가 사역하는 동안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를 버리고 도망친 데마도 경험했고, 신실한 동역자 누가와 두기고도 경험하였다. 우리 총회에서 길러야 될 인재들은 지역교회에 충성된 자들이다. 팬스레 신앙적 걸밧이 들어 여기 저기 기웃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신실함으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 세움을 배출함에 있다. 요사이의 교파의식이 희미해져서 교우들이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뿌리 의식이 확실한 개혁신학의 정신과 삶을 간직한 어디서나 충성된 일꾼들을 강력하게 세워가야 한다. 개혁자들은 성경적 교회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진력하였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일그러진 교회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헌신하였다. 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영적 어머니”라고 교훈하였다. 교회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어릴 때부터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다. 진정 기성세대가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교회 사랑을 온 몸으로 체험하고, 지역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될 것이다.

총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전국에 흩어진 교회 가운데서 농촌과 도시를 가릴 것 없이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칭찬 받는 교회를 택하여 각 분야별로 장려하고 포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한다. 각 교회에 세례자 부담금은 내라고 독촉하면서 안디옥교회처럼 선교에 모범적인 교회, 서머나교회처럼 고난가운데서도 충성된 교회, 빌라델비아교회처럼 형제우애가 가득한 교회를 왜 격려하지 않는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웃으로부터 칭송 받는 교회, 특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전력투구하는 교회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총회가 정치화되면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가 정책화 되면 비로소 교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5. 복음전도자

사도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주문한다.

복음은 지옥문을 닫아주는 능력이다. 복음은 듣는 이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게 한다. 사도바울이 고백한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그 본래적 가치 때문에 충분히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복음과 고난은 함께 간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1:8)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5)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한 존재임을 확신하였을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디모데에게도 복음을 굳게 지킬 것을 명령하였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딤후 1:11-14)

우리 총회가 힘써야 할 일은 우리 총회만의 복음전도에 대한 탁월함이 부각되는 전도의 열정과 전도법이다. 여러 선교 단체에서 개발한 전도법도 유용하다. 또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전도폭발훈련 일명 전폭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우리 총회에서 공인되고 쓰임 받는 뚜렷하고도 내세울만한 전도법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앞에서 본바와 같이 관계 전도와 생활 전도가 대세임을 알 때 시대를 이끄는 전도법의 개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6. 가정 세우미

앞에서 보았듯 담임교역자와 부교역자 그리고 교육 현장에 있는 이들이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한결 같이 절대 다수가 출산을 저하를 꼽았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한 당연한 염려이다. 거기에 더하여 가정 윤리가 붕괴되니 그 직격탄을 사회뿐 아니라 교회도 경험한다. 가정해체 현상이 가속화 되고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즉 ‘삼포세대’로 자조한다. 심지어 여기에 더하여 집과 경력을 포기를 포함한 ‘오포세대’, 여기에 희망과 취미를 포기한 ‘칠포세대’를 살고 있다. 계층간의 갈등과 세대간의 대립 또한 자본주의 폐해가 송두리째 본 모습을 드러내는 삭막한 시대를 우리 자녀들은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라 말할 수 있겠는가? 사탄이 에덴(뜻:기쁨)동산에서 부부간의 불신을 부추겨, 실낙원의 아픔을 가져왔듯, 지금도 여전히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가정 세우미는 하루아침에 양육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각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깊은 사랑과 형제자매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며 전인격적으로 성장한다. 그들이 잘 자라나 건강한 가정의 세움이와 지킴이가 된다. 사도 바울은 이방 문화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세울 것을 확신했다. 특히 초대 교회 직분자들은 가정생활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했다. 믿는 자의 가정을 사회의 등대처럼 세우는 사명이 직분자의 몫이었다.

“미쁘다 이 말이며,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딤후 3:1-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딤후 3:12)

성적 타락이 만연하고 남녀 관계가 도를 넘는 시대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소유한 가정은 그 시대에 살아있는 메시지로 우뚝 서게 된다. 그 중심에 교회의 거룩함을 간직한 가정, 가정의 따뜻한 사랑을 간직한 교회는 상호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경험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정이 존재하리라.

가정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총회는 다양한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세미나를 열고 교재를 출판하여 우리 총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건강히 세워지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미 세워진 가정 사역 기관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방법도 상호 유익을 도모할 것이다. 총회 안에 ‘교육진흥원’이 있다면 역시 총회 안에 건강한 ‘가정진흥원’도 필요하다. 건실하게 목회에 임하는 사역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면 좋은 방향이 설정되리라 생각한다.

7. 통일을 대비하는 피스 메이커

전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다면, 우리 시대에 통일의 열매를 거두도록 피스메이커 곧 화평케 하는자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도 동족이 구원을 얻는 일이라면 자기 한 몸 기꺼이 불사르겠다고 고백하였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3)

지금도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채 억압받고 있는 동족이 같은 하늘아래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광복이후 분단을 경험한지 여러해가 지났지만 통일의 그날은 요원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심지어 핵으로 동족을 위협하는 북한 공산 정권을 보노라면,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한 핏줄, 한겨레이거나 한 것인지 회의가 몰려온다. 가슴이 아리다. 암담한 시대를 넘어 서독과 동독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오직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통일의 시대를 소망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알린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 2:14-16)

한국교회가 세워야 할 미래형 인재를 통일을 열어가는 화평케하는 자이다. 먼저는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피스 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의 교파주의와 개교회주의에 담을 뛰어 넘고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유물론 이념을 복음으로 승리하고 녹여내는 화목케 하는 사역을 펼쳐가야 한다. 복음적 통일이여 오라. 백두와 한라가 손을 잡으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평화의 동산이 되라.

8. 세계를 품는 글로벌 크리스천

복음자체가 세계적이다. 복음자체가 우주적이다.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로부터 나온 복음이 한 지역이나 한 민족에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 구약에서도 이 사실을 강하게 증거하였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시 67:2-3)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모습은 복음의 전세계성이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계 14:6)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전파에 모든 것을 걸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1-2)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복음의 빛진 자로 규정하였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 1:14)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복음전파와 이방인 구원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딤후 4:17)

우리 총회 세계선교회(GMS/ Global Mission Society)에 지원하는 선교지망생들의 숫자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세계를 품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명실상부한 선교한국, 선교 GMS를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극동을 품고 조선을 품은 선교사들이, 미전도종족이었던 우리나라에 달려왔을 때 어둠은 물러가고 복음의 영광스런 빛이 한반도에 임하게 되었다. 받은 자는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본 자는 말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복음은 결코 가두어 질 수 없다.

우리 총회의 젊은이들은 교회와 함께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는 선교단체들에 의해서만 세계 복음화에 도전 받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총회는 GMS와 ‘총회교육진흥원’을 비롯한 선교의 선구자와 선각자 역할을 하는 교회들에 의하여 세계를 품는 글로벌 크리스찬을 일으켜야 한다. 복음으로 지역교회 청년 대학부와 청소년부를 강하게 사로잡아야 한다.

제2의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와 사무엘 마펏(Samuel A. Moffet)이 일어날 것이다.

9. 천국 대망자(待望者)

천국 대망자는 최후 승리자이다. 우리는 예외 없이 지상의 삶이 끝나면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 4차 산업시대가 도래했다. 정확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Davos Forum/‘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의 통칭. 세계 각국의 정계(政界)·관계(官界)·재계(財界)의 수뇌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경제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말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人工知能)을 정점으로 한다. AI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통해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총신의 이상원 교수는 “인공지능이 지닌 논리적 추론과 연산능력을 활용하여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로봇을 잘 활용한다면, 인류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모든 과학기술들이 그렇듯이 인공지능이 지닌 탁월한 기능들을 잘못 작동하거나 남용할 경우에 인간사회에는 심각한 피해가 끼칠 것이다. 그러나 이상향에의 집중은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이상숭배의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세의 기술을 가지고 현세와 연속성이 있는 영원한 생명과 이상향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도는 탑 쌓는 기술을 남용하여 하늘에까지 이르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은 교만한 인류의 허망한 시도와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된다.”

바벨탑은 인간 교만과 타락의 심벌이다. 이와 반대로 십자가는 은혜의 심벌이다. 교만한 인간이 현세의 현란함에 빠져 종말을 망각할 때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기에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2)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시 90:4)

제 아무리 AI 시대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변함이 없다. 세속화의 물결이 세차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천국의 가치는 확실하다. 진정 천국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상에 사는 동안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는 자명하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친히 말씀 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 7:13-14)

주님 주시는 생명만이 영원한 가치이기에, 찰나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세상은 우리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신다. 주님께서서는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을 딛고 일어서라 말씀 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마 5:12)

사도 바울 역시 고난 받는 성도들을 진리로 격려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한국교회에 변질된 복음이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이 현세의 축복에 중독되도록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주님께서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지만, 복음을 오해한 사역자들이 현세적 축복을 강조함으로 천국의 영광을 손상시켰다. 우리 장로교회 개혁신학을 따른다고 자처하는 이들마저도 흔들림이 적지 않았다. 천국의 가치는 유행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 진리는 다수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발제자 역시도 교우들에게 천국의 꿀을 온전히 공급하였는가를 자문해본다. 아니면 현세의 축복을 강단에서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았는가 반성해 본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역자들이 목숨 걸고 외쳐야 할 진리는 스스로 생산해 낸 진리가 아니라, 주님께로 받은 말씀이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긴다. 영혼 구원과 무관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현세에 바벨탑을 쌓도록 부추기는 진리는 참된 진리가 아니다. 유한한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복음만이 참 복음임을 확신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 1:9)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 1:24-25)

총회에서는 이교 장례문화를 벗어나 기독교적 가치, 천국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개혁신학이 바탕된 장례문화를 정착시킬 책임이 있다. 장례문화에서 이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천국의 소망을 각인시키는 장례문화 지침서를 출판 보급할 것을 발제자는 목회현실에서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나가는 말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는 사람이 있다. 미성숙한 사람과 복음의 대적자는 우리 주님 오실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안다. 모든 생산적이고 은혜로운 곳에도 사람이 있다

곧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먼저 믿는 기성 세대의 책무이며, 특히 영적지도자인 목회자의 목회적 본분이다.

교회 종직자의 사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를 향한 책무를 망각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를 다짐하였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시편 48:13)

당대의 책임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가감 없이 후대에 전하는 일이다. 나를 살리신 복음을 자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시 78:1-4)

후대에 전하는 이유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이며, 만약 후대에 전하지 않으면 반역의 세대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시 78:8)

우리 교단 출신으로 목회자이면서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미래를 대비하는 3가지 지혜를 말했다.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 두 가지의 상관관계이다.

그렇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죄성도 변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대정신은 변화무상하다. 정권도 변한다. 지상의 나라도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시 31:15a) 우리의 고백도 동일하다.

발제자는 우리 총회가 배출해야 할 성경적 인재상을 제시하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총회가 세워야 할 인재는 사람의 구미에 맞는 인재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시대정신을 역류할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행 13:22)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여호와와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대하 16:9a)

앞에서 제시한 교회가 키워야 할 미래형 인재는 주님의 지상명령(至上命令/ The Great Commission)에 합한 인재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일은 교회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칼빈, 루터, 나스, 주기철, 손양원, 역사의 현장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간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물들이 우리 총회 산하 모든 가정과 교회 특히 주일학교를 통하여 구름떼처럼 일어나기를 바란다.

Soli Deo Gloria !